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<b>2020. 10. 30.(금)</b> <b>총 3매(본문2, 참고1)</b>	
<b>담당 부서</b>	국토교통부	<b>항행시설과</b>	• 과장 유병수, 사무관 김민수, 주무관 김로타 ☎ (044) 201-4356, 4357, 4361
	한국공항공사	<b>항행시설부</b>	• 부장 김지태, 차장 양현배, 과장 전현탁 ☎ (02) 2660-2861, 2868
<b>보 도 일 시</b>		2020년 11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3일 「항행안전시설의 미래 발전방향」 온라인 세미나

### -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행안전시설 글로벌 동향·활용기술 공유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오는 11월 3일 ‘포스트 코로나 시대, 항행안전시설의 미래 발전방향’이라는 주제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공항공사(사장 손창완)가 주관하는 「항행안전시설\* 국제 세미나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\* (항행안전시설) 항행에 필요한 거리·방위각·착륙각도, 공항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토록 지원해 주는 필수 시설

○ ‘9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부와 산·학·연 간 항행시설 분야 최신 정책과 기술동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올해는 코로나-19 사회적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, 항행분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래 위성기반 항행시스템(KASS\*) 구축, 증강 현실(AR) 기반의 항행시설 원격기술지원 등 7개 주제가 발표된다.

\* (KASS,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) GPS 오차를 실시간 보정(수평 3m, 수직 1.2m 이내)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제공하는 한국형 정밀위성항법시스템

- 특히, 오스트리아 항공관제시스템 제작업체인 프리퀀티스社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무인관제탑 기술 및 해외공항 구축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.
  
- 국토교통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“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무인관제탑 기술과 AR기반 원격 기술지원 등 항행안전시설 분야 언컨택트 기술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”면서,
  
- “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코로나-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밀위성 항법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, 혁신기술을 항행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안전성과 효율성 높은 항공기 운항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행 시설과 김민수 사무관(☎ 044-201-435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**

**세미나 세부일정**

시 간	구 분		내 용
13:00 ~ 14:00	1부	등 록	- 참석자 접속경로 문자안내 등
14:00 ~ 14:10		개 회 (영상)	- 개회사 : 국토교통부 - 환영사 : 한국공항공사 - 축사 : 인천공항공사
14:10 ~ 15:10		주제발표 및 토론	- 미래 위성기반 항행시스템(KASS) 구축현황 (한국항공우주연구원) - 차세대 항공이동통신시스템(AeroMACS) 국내구축 방안(한국전자기술연구원) - 항행서비스료 개선 추진방안(이노스카이)
15:10 ~ 15:30	Coffee Break		
15:30 ~ 16:50	2부	주제발표 및 토론	- 무인관제탑 기술 및 해외공항 사례 (프리퀀티스社) - 증강현실(AR) 기반 항행안전시설 원격기술 지원 운영방안(한국공항공사) - 인천공항 출도착관리시스템(DMAN/ AMAN) 구축 현황(인천국제공항공사) - 도심형 항공교통(UAM) 운항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(한국공항공사)
16:50 ~ 17:00		폐 회	- 폐 회